

이만의 하나됨! 어울림 그속에 우리교육 지키기!
미국반대! 하나의 내조국을 위한

대전환 2000! 압량벌 대동한마당

오월의 노래 2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러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젓가슴
왜 쏘았지 왜 찢렸지
트럭에 싣고 어디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서려있네
.....

대머리아 쪽바리아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일시 : 5·18 광주 민중항쟁 20돌 5월 17일~19일
장소 : 천마로 본무대를 중심으로 천마동산 곳곳

민족 영남대학교 33대 자주적 총학생회

곡안리 학살지를 다녀와서

여기도 저기
독수리가 활귀고 간 자리 찾아 여기 왔어라
어드메?
마산 남서쪽 30리 허에 곡안리 마을
곡안인가? 예로는 골 아늑한 곳이었으리
이제 버려진 황폐로다

유지 피해 대책위장 이만수씨를 찾으니
나이 걸맞지 않게 씩씩 당당 거침없이 내뱉기를
“이 세상 제1악당 미국놈” 이란다

상처받은 멧돼지 내달리듯
할베 인도따라 참화의 장 정각에 이르니
서당 안, 대청 마루며 여기 저기
총탄 자욱 피의 자욱 무수 남자한데
조상 모시던 곳이라 가호 믿고 은신했거늘
성주 이씨 가문 70여명, 그 자리 몰사 죽음!
아하! 흠짓도 하라 그날의 참사 씻을 수 없는 흔적이며!
의장 할베 거친 숨결 모아진다.
“누구랴! 이 통한 달래 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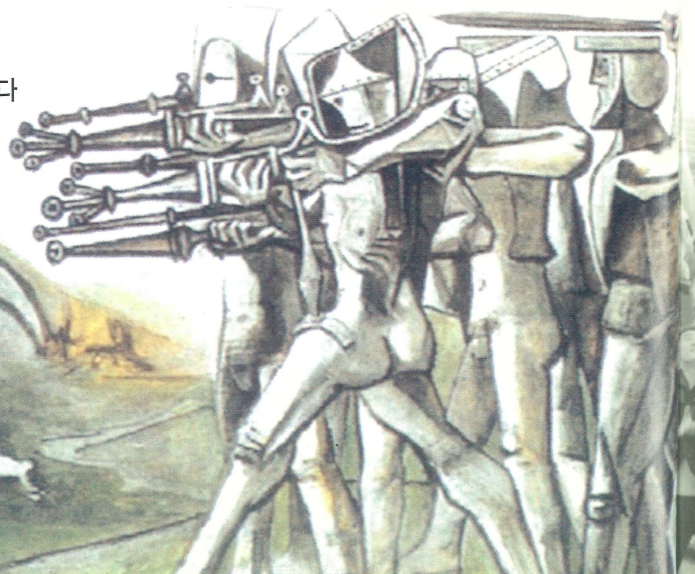
우리 답한다
“우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되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의 보상, 아니, 피눈물의 배, 배상
기필코 이루어 내고
마침내 ‘아메리카 아저씨’ 물러가세요!”

황점순 할미를 뵈었구나
안았던 자식 가슴에 구멍 뺨 뚫리고
당신의 피도 범벅이 된 채, 7·8월 콩밭 가랑잎으로 덮어 두었다마
는
죽임의 시체도 없이
아하! 내 새끼야 죽었는 동 살았는 동
아하! 내 새끼야 죽었는 동 살았는 동
팔순 할매 옛 이야기 끝이 없고
기가 참고 숨이 차고 마른 샘에서 눈물 솟는다

이제 어두워,
동리 입구로 나오니
희름한 매접에서 근동 아저씨들 술을 마시며
우리보고 수고하니 썬주 마셔라 과자 먹어라
맥주 마셔라 파이 먹어라

이제 떠남에
동리 할매들 따라 나서며
아이고! 어쩔끼고 그냥 보내서
아이고! 어쩔끼고 그냥 보내서

1950년 10월 황해남도
신천군을 점령한
미군사령관 해리슨은
50여 일동안 무고한
양민 35,38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우리 민족에 대한
학살참극을 피카소는
'코리아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으로 증언하고 있다.



.....

■건학 반세기를 넘은 올해의 대동제에서는 그 동안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어 왔던 대동제의 올바른 문제와 오류를 극복하고, 성과와 비판을 계승하며, 아울러 이후에 대동제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작업을 통해 건전한 대학 문화의 전형으로써의 대동제

■학원의 3주체인 학우, 교수, 교직원의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참여와 화합을 일구어내고, 명실공히 천마인의 이름아래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대동제

■대학의 구성원 중 학우들은 학원을 발전시키고,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주체, 학우들이 천마인으로서 자긍심으로 우리의 학원을 일구어 가고, 민족영대의 문화와 학풍을 학생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만들어 가는 대동제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향락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대학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진지하고 활발한 대학인의 모습을 담아내어 대학공간에서의 소비향락문화를 배척하고, 나아가 민족문화, 청년문화를 창출하는 대동제

■아울러 올해에는 광주민중항쟁 20돌이 맞이하는 해이며 시기입니다. 또한 미군의 양민학살과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범죄가 연일 속출하는 상황, 그리고 5월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 및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하나된 조국을 바라는 염원은 더 높아만 가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시기에 현실 문제에 기반한 한판 대동의 장으로 현실을 함께 해결하고 의지를 모아내는 장으로 대동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영대, 대동제



대동제의 목표

■ 각 과와 단대와 동아리의 특성을 살려 활성화

- 단위와 전공 특성에 맞게 독창적인 사업을 전개
- 학생회 체계를 복구하고,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
- 과와 단대의 다양한 행사를 독려, 지원하고 간부들의 지위와 역할을 고양
- 과와 단대속에 숨겨진 개성과 특기를 발굴, 외화시킴
- 문예동아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활성화

■ 상반기 등록금 투쟁을 마무리하고 민족교육지킴이투쟁을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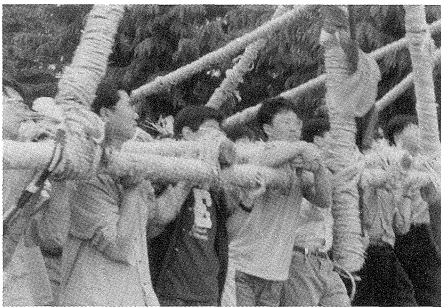
- 학생회만의 마무리가 아닌 학우들속에서의 열린 평가와 마무리
-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속에서의 믿음과 신뢰회복
- 학우들속에서 의견개진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며 이후 활동에 대해 알려나갈 것임

■ 특색있고 독창적인 대동제의 전형을 만들기 위한 특색있고 독창적인 대동제의 전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

- 일상화된 대동제가 아니라, 시대와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동 한마당을 개최
- 특색있는 과, 단대 및 동아리의 공간을 넓혀내면서 창조적인 작은 행사 활성화

■ 영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드높인다.

- 학원의 진정한 주인선언을 실현시켜나가는 자리이며, 참여를 높여 냅시다.
- 영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내고, 2만 천마인의 애교심을 높여나가는 장이어야 합니다.



.....
■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노-농-학연대 및 교류를 강화

- 공연관람수준을 넘어선 다양한 참여의 공간 확대
- 정치수배(한총련 대의원)해제와 투쟁기금 마련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제 민주단체와의 지역적 연대의 틀을 넓혀갑니다.

■ 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의 본질을 밝혀내고 한총련에 대해 학우들에게 올바르게 알려나가며,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 및 대중적 참여 공간을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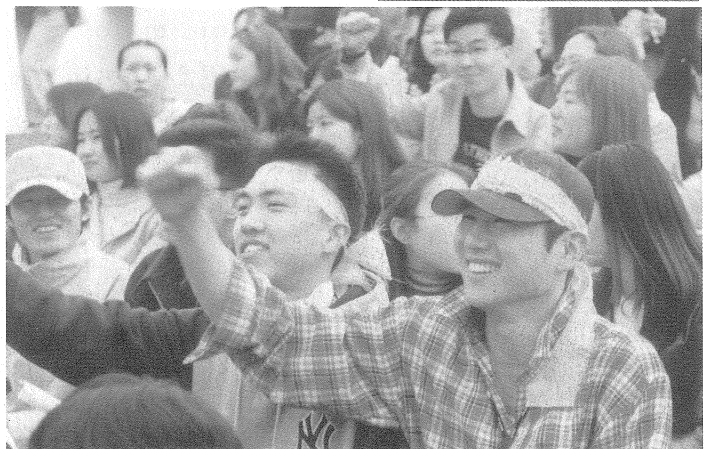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방도 마련

- 남북 정상회담을 올바르게 성사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에 대한 합의
- 주한미군의 본질과 만행에 대하여 알려나가며, 양민학살의 진상규명을 7천만겨레의 힘으로 해결해 갈 것에 대한 합의
- 비전향 장기수 복송 실현을 위한 활동과 논의 및 합의
- 조국 통일 3대헌장을 알려나가고 기념탑 사업을 2만 학우들과 함께 진행

■ 5·18 광주민중항쟁 20들의 현재적 의미를 합의하고 실천

- 대동제의 다양한 행사속에서 광주민중항쟁을 피로 물들인 주범인 미국반대의지를 모아냅니다.
- 각 단대 학생회별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사업을 풀어가도록 합니다.

대동제의 목표



양민학살과 미국 그리고 대동제

양민학살 그 역사의 현장에 가다

이 땅의 한민족이라면 듣기만 해도 분노 할 수밖에 없고 보기만 하면 피가 역류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모습을 들어내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우리는 북한군의 소행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리고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말을 꺼내면 빨갱이로 몰릴까봐 남몰래 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1945년 미군이 한반도 이남 땅에 진주하면서 발표했던 '조선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이 이 땅에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군으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전쟁당시 보여주었던 만행들은 그들이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정복자, 침략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던 노근리 학살 만행, 그리고 온 가족을 몰살했던 곡안리, 한국 군경을 시켜 정치범들을 처형하게 한 것, 그리고 총을 쏘아 머리가 부서지고 눈알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꼈다는 미군의 이야기를 통해 미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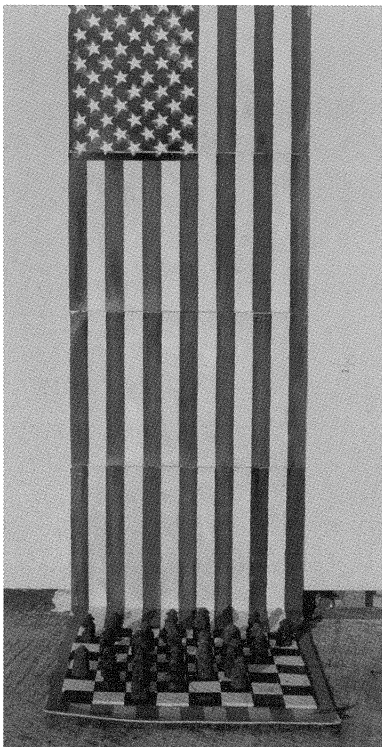
양민학살과 대동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월 있었던 미군 병사 매타시에 의한 한국 여성 김성희씨가 목이 졸려 살해당한 사건, 그리고 지난달 60대 할머니인 서정만씨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피멍이 들어 숨진 사건 등은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한낱 들쥐와 같이 생각하고 점령군으로 위치한 미군을 이 땅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양민학살의 역사와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과 김대중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국 민중들에 대한 학살은 한국전쟁 당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미국은 대동강변에서 약탈과 부녀자들에 대한 폭행을 미국에 대한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후 45년 점령군으로 이 땅에 발을 들여 놓 미국은 조선 총독부에 성조기를 올리고 한국 국민에 대한 폭압과 학살을 시작하였습니다. 거창, 제주도, 여수, 순천 지역 등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전쟁당시에는 남북한 가릴 곳 없이 그들의 군화발이 닿는 곳이면 어김없이 무고한 양민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은 자신의 한반도 지배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80년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였고 지금도 주한미군에 의한 학살 만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미국의 학살 만행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자신들의 공식문서와 한국국민들의 심장에 새겨져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50년 한국전쟁 당시의 끔찍한 사건을 가슴에 묻고 쉬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가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세상은 북한 공산군의 만행으로 알고 있고 미군의 소행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빨갱이로 몰리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가슴속에만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한 두 명씩 세상을 떠나고 이 사건의 진상이 왜곡된 채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지게 될까봐 그들은 용기를 내어 한국정부와 그리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앞으로 진정서를 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종이조각 한 장이었습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은 “움직이는 것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라” 라는 내용의 극비 문서에도 잘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만행이었습니다. 또한 노근리 쌍굴다리에는 아직도 총알 자국과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유가족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엄연히 극비문서 2건이 공개되었는데, 정보가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진상조사다 뭐다 하여 취하는 미국의 태도는 자신들의 살인 만행을 정당화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던 미국은 양민학살 사건이 세인에게 알려지자 자세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대책단 단장인 칼데라 육군부장관의 발언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난 9월 서울에 도착한 칼데라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조사와 관련해 혼란과 잔인성이 전쟁의 본질이라느니, 뭐니하고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 기간에 발생한 모든 전투와 총격전

**2000년 대동제는
단순히 폭제의
장만은 아닙니다.**

.....
에 대해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나 결정될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는 당시 미 육군 지휘관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전투원으로 오인했다고 두둔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자행되었던 미국이 수많은 양민학살만행을 혼란과 잔인성이 본질로 돼 있는 전쟁하에서는 피치 못할 일이라고 당연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버리려는 비열한 속셈이며 자신의 침략적 모습을 감추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2000년 대동제는
단순히 축제의
장만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의 태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자행했던 학살 만행에 대하여 미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에 김대중 정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9월 29일 노근리양민학살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 이후 정권의 태도는 과연 김대중 정권이 '국민의 정부'인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미 명확히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정부는 며칠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미국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일 것이 뻔한 이치인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니다. 즉 피해자 및 관련 미군에 대한 인터뷰, 현장 조사, 노근리 관할 인 충청북도 등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등의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진상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10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책동과 오인 폭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의 우호 관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사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친미 사대 매국적 정책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만행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대가를 받아낼 것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5.18과 미국 그리고 주한미군철거

5·18과 미국

올해는 5·18광주민중항쟁 20돌이 되는 해이다. 80년 5월 광주항쟁은 단순히 2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80년 광주를 통해 우리는 권력만을 쫓는 무리들이 얼마만큼 야만적일 수 있는 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항상 다수 민중의 것이어야 함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80년 5월 광주항쟁은 '미국'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공개된 미국의 비밀문건은 광주학살의 비극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권 장악 등 우리시대 최근대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치열했던 시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문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두환 신군부가 막무가내로 권력찬탈의 길을 내달릴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2000년,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한국군의 군사작전권을 쥐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50년 한국전쟁당시 양민학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 20돌을 계기로 자주적 권리를 지켜나가는 국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이것을 막아 나서는 정권과 미국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5·18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20년 전 5·18광주민중항쟁은 광주 시민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도로가 차단되고 언론에 의해 왜곡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은 일부 폭도들과 빨갱이들의 반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된 광주의 진상이 드러나기까지 실로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피값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으로 95년 5·18청문회가 열리고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들이 처벌되면서 비로소 5월 광주는 국민들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곧 사면으로 풀려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민중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왜곡시키고, 보상이자 신묘역이다 이야기하며 5·18정신을 물어두고 자신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면서, 5·18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군대이동을 승인함으로써 전



5.18과 미국 그리고 대동제

.....
두환 군부세력의 광주학살을 배후 조정한 미국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에 5·18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군사 작전권을 쥐고 있으면서 한국전
쟁 당시 정치범을 대량학살하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
였습니다. 80년 미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군부쿠
데타를 지원하며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꺾었으며, 5월
에는 군부의 학살을 승인, 지원해줌으로써 독재를 반대
하고 민주를 외치는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하기에 5월 광주민중항쟁에 있어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
고, 군부 세력들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은 본질을 가리
고 무마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계기로 민족의 자주 없이는 민주도 없
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족 자주의 가치
야말로 항쟁이 피로써 각인 시킨 역사적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5·18의 진상을 밝혀내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 작전권을 쥐고 있으며, 훌륭한 정보시스템
을 갖추고 한국의 동태를 한국정부보다 더 자세하게 알
고 있는 그들이 80년 광주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
니다. 국민들의 터져 나오는 미국반대의 감정을 막아보
고자 5월만 되면 '광주알리바이'를 대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미국의 모습은 도둑이 제발 저린 꼴입니다. 문
혀져 가는 과거로서 기억되는 광주가 아니라 현재진행
중인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는 과정에서 518문
제는 지금시기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
국의 정치 군사적인 개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국 최
근 현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광주민중항쟁의 본
질, 미국의 배후조종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은 한국사회
에서의 미국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올해 미국의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고 국민들의 미국반대감정이 높아
지고 있는 지금,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이 반
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2000년 대동제는
단순히 폭제의
장만은 아닙니다!**



성명 : 김경희
생년월일 : 1962.5.23
사망경위 : 80년 5월 20일 노동청 앞
에서 공수부대에게 전신구타 당한 후유
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 92년 2월
사망함.

.....

5·18정신 계승은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역사의 대참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주는 역사적 의의는 실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5월 정신은 80년 이후 민주화, 자주화, 통일을 향한 전국민적인 요구를 일구어 가는 모태가 되었으며,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역대 독재정권의 씻을 수 없는 원죄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5월 항쟁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민족자주의 진리를 일깨워주었습니다. 80년 5월 22일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소문이 번졌고 이의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거리에 나붙기도 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그날 미 국방성은 미군사령관의 지휘권 아래 있던 한국군 4개 대대를 광주에 대한 무력진압에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으며 국민들은 이것을 계기로 민족자주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재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결사항전의 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군부의 무력에 정면으로 대응함으로써 억압과 굴종의 장벽을 깨부수고 위대한 민중의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입니다.

5월 항쟁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자주와 민주를 향해 굽힘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5월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를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을 몰아내고 사대매국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5.18과 미국
그리고 대동제**



대동제 일정



17일(수요일)

하나의 내조국을 위한 3대헌장 모의 기념탑 건립

시간: 오후 1시,
장소: 통일동산

5·18 정신계승과 주한미군 철거! 민족영대 하나됨을 위한 천마인 마구달리기 대회

시간: 오후 3시
장소: 천마로
코스: 본무대 - 정문 - 공단 네거리 - 경산오거리 -
시청 - 기숙사 - 공대 운동장 - 본무대
상품: 1등 - CD플레이어
2등 -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도서상품권
3등 - 식권 50장

대전환 2000! 압량벌 반미·통일 대동제 개막식

시간: 오후 5시
장소: 본무대
진행순서
식전 공연(풍물패 길놀이, 노래패 '희망' 공연)
개막 선포
격려사
축사(범민련, 경민협)
연대사
함흥의학대학 축사
(부)총학생회장 인사

경산 시민·학생 노래 한마당

시간: 오후 6시
장소: 본무대
식전행사(HipHop페스티벌)
본 행사 진행
초청 공연: 김혜연

.....

18일(목요일)

대전환 2000! 압량별 4회 과100인 합창제

시간: 오후 6시

장소: 본무대

진행순서

북한노래한마당

초청공연: 꽃다지

상품:

1등 - 20인치 칼라텔레비전

2등 - CD겸용 미니 콤포넨트

3등 - 벽걸이 선풍기

참가상 - 5만원 도서상품권

대동제 일정

즉석 커플 물종선 받기 대회

시간: 오후 3시

장소: 시계탑앞

참가신청기간: 5월 17일부터 5월 18일 오후 1시까지
선착순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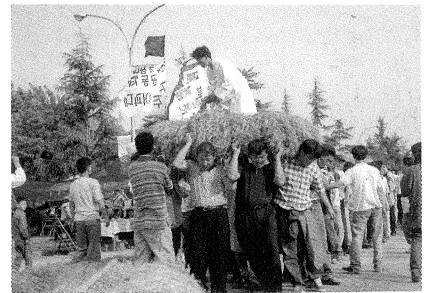
상품:

1등 - 커플링 교환권

2등 - 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등 -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참가상 - 영화 입장권 2매씩



19일(금요일)

도전! 펜티엄을 잡아라!

시간: 12시

장소: 본무대 앞

참가 신청: 5월 17일 - 5월 19일까지 선착순 100팀

경기방법: 1차 관문 - OX퀴즈로 100팀 중 30여팀 선발

2차 관문 - 물구나무서서 오래 버티기 1팀 선발

2차 관문 통과자 1팀에게 미니컴포넨트 시상

3차 관문 - 2명이 같이 애국가를 타이핑해서

1분 30초 안에 성공

3차 관문을 통과하면 펜티엄 컴퓨터 증정

대동제 일정

대전환 2000! 압량벌 반미 · 통일 대동제 폐막식

시간: 오후 5시
 장소: 본무대
 진행순서
 식전문예공연 "희망"
 통일축구대회 시상식
 반미축구대회 시상식
 압량벌 농구대회 시상식
 도전! 펜티엄을 잡아라! 시상식
 폐막 선언(총학생회장)

천마가요제(ubs와 함께)

시간: 오후 6시
 장소: 본무대
 진행순서
 민중가요 한마당(노래패 '희망' 및 단대 노래패)
 초청공연: 서문탁

상설 마당

압량벌 통일 축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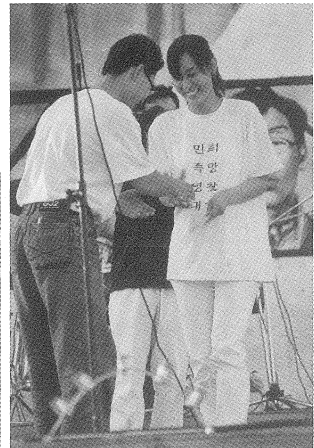
압량벌 반미 축구대회

압량벌 농구대회

시간: 17일부터 예선전 19일 결승
 장소: 축구장, 천마로 주변
 참가 방법: 개별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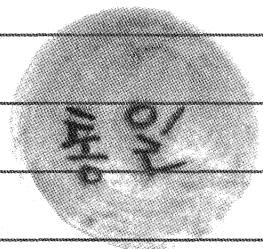
철야 영화제

시간: 11시 이후



선거제개혁

2002



2002년 자주적 여학생회 건설로 통일조국 여성해방으로 달려가자!

-2002년 선거정책 회의

14 15
1132 15
15 8x1

1. 모임의 상

- ① 2002년 선거 정책 생산
- ② 각 대학 여학생운동 평가와 여학생운동 발전전망 논의
-대중투쟁, 조직, 사상
-대중의식화 조직화
- ③ 2002년 투쟁 과제 도출 및 전국적 흐름 창출

2. 모임 내용

선거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

① 각 단위 상황 총화

- 학내 의식 흐름
- 학내 여학우 정세
- 올해 활동 총화
- 각 대학의 여학생 운동 평가

→ BDU

② 정세 토론

③ 핵심 내용 마련

-내용적 부분: 대중투쟁 내용 등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총화 및 전망
- : 기지촌 문제에 올바른 관점 및 해결 투쟁 및 흐름
- : 매매춘, 호주제 등 제반 문제

남여대협, 조, 영, 조, 영

-조직사상적인 부분

(소도인) 과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 정형 총화 및 건설 전망

: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대중 사업 정형 창출을 위한 총화(사람사업을 어떻게 병행하여 잘 결합시켰는가)

: 여학우 새내기 새로배움터 및 새내기 새로배움터

: 총여학생회 출범식

: 여성문화제

: 여학우 간부 수련회

④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토론 내용

- 민중해방과 여성운동, 현재 여학생운동의 사명
- 조직현황 및 여성운동 조직에 대한 부분

→ 전국대협, 전국여성회

3. 기타 논의 사항

선거운동원 교양 자료

4. 참고자료

-2001년 선거 정책 도움 문서

-2001년에 제출된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룬 문서

강사 - 남여대협

1차 선거 정책 회의

2001년 10월 7일

- 1. 소개 및 결의
- 2. 선거 정책 회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 3. 각 단위 총화(2번의 ①번을 중심으로)
- 4. 분공 및 이후 일정

76회대 여학생회장, 이메일, 설문지작성

내조국을 장사!

선거정책 관련 고민

1. 대상

서울-경희대, 경인-경기동부 및 아주, 충청-고대, 남-전남, 조선, 대경-영남, 부경-부산, 동아(충9)

2. 모임의 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3. 모임 내용

선거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

① 각 단위 상황 총화

-학내 의식 흐름

-학내 여학우 경제

-올해 활동 총화

-각 대학의 여학생 운동 평가

② 정세 토론

③ 핵심 내용 마련

-내용적 부분

-조직사상적인 부분

④ 기본적으로 준비되고 토론되어야 할 내용

-민족해방과 여성운동, 현재 여학생운동의 사명

-매매춘, 호주제 등 제반 문제

-조직현황 및 여성운동 조직에 대한 부분

4. 모임 횟수 및 시기

2회 또는 3회

9/23, 10/7, 10/14

5. 맞물려서 중앙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전여대협 평가 전망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책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세계 여성운동사 1,2, 우리여성의 역사,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대학여, 변론, 흥서 5권 등

자료

전여대협 역사, 여성 노동운동사, 여성농민 운동사, 여성단체 운동사

현 시기 이남 사회 여성운동의 현황 및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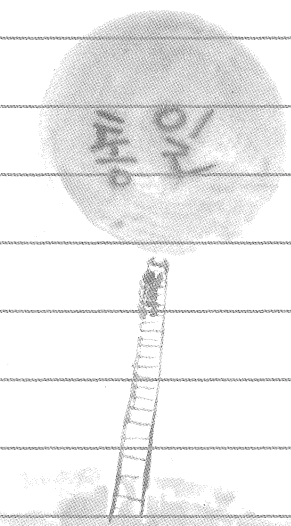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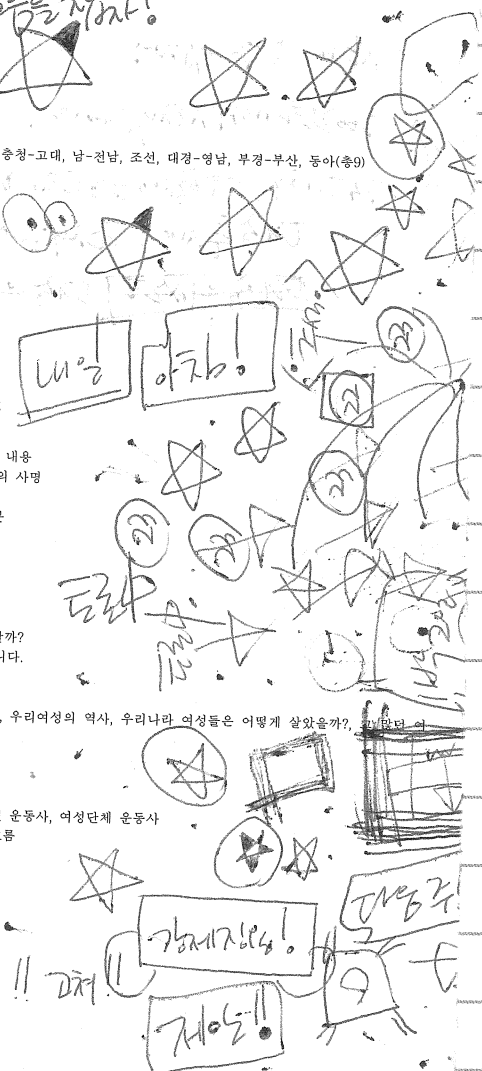
특별법 제정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올바른 역사로 서술하라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라

일본에 국가적 차원의 배상 촉구하라



201. 10. 18. 2차 회의

북산, 남, 전, 영, 전담위원 - 9명

① 대외사업상 회의

02-1. 해외사업에 대한 의견, 해외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왜해야 하는지
대한 해외사업의 중요성, 대한 인식 개량

해외사업 새내기 교육 - 해외사업 왜 해야 하는지 강연 : 해외사업
성공 해외사업 사례 - 구사온 씨 강연
남미, 동남 문제 풀기

→ 신규사업에 대한 상담 → 소양을 높이고 계획하듯
주제 문제
→ 장래등을 계속 차감
→ 신사업등 느끼는데 부족

대동제 : 대동동(한동대) (전담위원) (전담위원)
선진진(구사온), 전담위원(남미)
사비대 및 소양을 배우기

→ 의사소통을 하자! (성명, 직위, 연락처 등)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연락처를 나눠주세요

→ 자비대,
→ 해외사업의 관심 많음

농산물 - 해외사업에 관심이 있는 한들 연구가 있었으나

→ 해외사업에 대한 관심은 느끼게
자비대 나가서, 자비대 마을로 농산물 판매

여사업상제 : 주제별로 3일 "사, 개, 2, 3, 여사업상제"

- 강의실 중상으로 하여서 많은 여사업상제 느끼 수 있도록
- 자비대 마을로 농산물 판매
- 선진진 해보는데 남미의 강연
- 해외사업에 대한 인식 개량
(남미, 동남), 선진진 해보는데

전국사상사업 - 여학생회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주어야 함.
전담교수 X. → 과장 X, 강사 X.

- 전담교수 (전담사상교수) X

전국사상사업은 기본 전담교수 - 전담교수 비록 대동제에

사상사업 - 과장이 잘 X, 전담교수. 전담교수 등을 통해 느끼는 것은 많음.

과외강사사업

- 과외 사범 대학에서 과외 과외강사사업 O, 과외 ~~과외~~ 과외강사사업.

지자체에 과외 과외강사사업.

→ 잘 세워놓는데 후속 과외강사 X

여학생특별지원사업 - 전담교수, 학생 사범, 전담교수 여학생

→ 학생 사범교수에게 학생 지원 목적.

→ 올해 마무리.

과외교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전담교수 지원사업.

과외 과외강사사업 자체적 문제 해결

- 전담교수 과외 X, 전담교수 지원

- 과외 과외강사 자체 지원.

지자체 - 전담교수 지원

성별차별 - 여학생지원 사업.

6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

성별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지도교수

- 학생 과외강사, 스태프 지원

→ 과외강사 지원, 전담교수 지원

→ 과외강사 지원, 전담교수 지원

부서 - 원장, 예비교수, 강사 비서 : 사범대학. : 남성을 위한 지원사업 있다.

→ 여학생들에게 대한 후지 않은 인성 지원

→ "비서" 등도 → 여학생들을 위해서 지원

- 전담교수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학생.

- 사범은 많은 학생들을 지원 못했기 때문에, 내지 못했기 때문.

인민대 여행사명령 - 미국 자본주의를 심판하라.

무한대를 해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항쟁에 대한 반대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여행사명령을 올림!

가장자본주의

항쟁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미국에도 자본주의라는 것 하나 제 목숨을 내지 X.

→ 미국에서 교민이 없거나, 미국 여행사들이 등 돌리고,
신경수업의 자존감 X.

미국에 대한 여행사명령 시위에 불신도

→ 세계 전향 교민, 여행사들이 여사들이나 교민.

전체 신경수업하는 모습!

정해진 시위 날짜서 2003년 7월 20일 여행사명령을 두고

~~2004~~ 2004 년을 기념하는 여행사명령을 다시 기념할 교민!

98년부터 여행사명령이 강제되어오.

시 - 정부가 항쟁자들의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무한한 강제적인 계책으로 시도하고 있다.

" 항쟁자들을 자살시키는 시위 위협하고 있다"

여행사명령의 의사표현, 항쟁자들을 잘 지양하거나 항쟁!

" 정부가 노골적으로 있다."

(2) 전세투쟁

가정집투쟁, 주채투쟁, 하숙집투쟁

미연

테러이후 불의의탄압, 대선투쟁, 쌍둥이투쟁, 대미.지지투쟁 → 여사명령이 ~~포기~~

반미반지(반미)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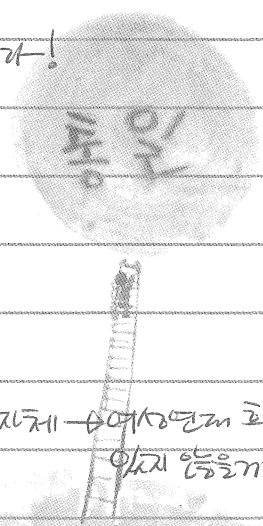
민중생존권 자력투쟁 - 여사명령투쟁 등...

정권타도, 대선 - 여사명령 세력투쟁

쌍둥이투쟁, 반미투쟁 투쟁,

도약하는 2만의 함성! 튼튼한 천년지기!

민중해방 여사명령 → 대중의식투쟁!



인민권 위안책! 문제 양선 해결!

반미투쟁, 연대투쟁 운동!

주체사상 체계, 1이재규체 실현!!

→ 피수형적.

남의 자주성과

대남 6.15이항비서적, 반미투쟁의 실패.

주체세계관의 변화 - 6.15이항 비서적, 대남에 주동자 참여까지.

반미투쟁(주), 반미투쟁 등 여사운동가들의 활동 비약적 증가

→ 남의 여사운동가들

여사운동가들의 자주사관들을 보장 함.

최소한의 심판해 가해자 명명 공개.

남의 여사에게 대남.

전쟁반대 여사들의 투쟁.

연대투쟁 - 반미투쟁, 반전투쟁

남의 투쟁에 참여해서 - 대남투쟁, 반미투쟁, 반전투쟁.

- 투쟁의 위계질서
- 많이 많은 남의 투쟁, 남의 투쟁이 가장.
- 반미투쟁, 반전투쟁 등.
- 투쟁의 위계질서!

(3) 반미투쟁운동

인민권 위안책! 문제 투쟁 참여 및 전쟁

- 6.15 공동 선언에 부응해서 인민권 위안책! 문제 해결

→ 남의 투쟁, 반미투쟁, 반전투쟁, 자주투쟁.

- 주체사상 인민권 투쟁을 수반하는 투쟁.
- 여사, 투쟁 문제 → 주체사상 연대투쟁!
- "여사투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 학생들에게 구원의 길로 학생들을 앞장서서, 학생은 조금 부족.

→ 후원회 조직, 자기조직, 위임과 같은 시기에 학생,
→ 다양한 활동을 하자

• 남들이 할 수 있는 특색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만의 특색

• 여학생의 문제 — 여학생들의 특색을 조사, 만들어라!

여성 여성운동자들,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 비영리 특색을 전파하기 위하여 해야 한다!

학생자 제정에서 학생 운동

• 학생이 제정된 때, 그러다 같이 → 학생을 자신의 학생

→ 학생들의 운동에서 시작하자. ~~→~~ 자기만의 제정된 운동제이므로
학생조직, 운동자

→ 학생에게 맞는 학생자 제정

→ 학생들의 이해, 관심을 끌기 위하여

→ 권위, 시대를 잘 들어야 한다.

→ 교수,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 학생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리더십을 개발.

→ 여학생들이 압도할 수 있다

→ 신뢰를 쌓는 방법

→ 강하게 신념을 가지라

→ 남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 가지

→ 여학생들의 의견, 자발성, 참여, 열정, 끈기

→ 제정된 이후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 동지들 등...

→ 학생자 제정 가장 진행되어야 한다

→ 학생들의 권위, 용기를 시험해보고자 해야 하는 것이다.
미안하게 정제, 특색을 가진 자들

→ 미국의 독립운동가 같이 힘, 같이 싸워야 하는 것이다.

→ 학생자 운동의 힘, 학생자 운동의 힘.

→ 학생자 운동의 힘과 학생자 운동의 힘, 학생자 운동의 힘, 학생자 운동의 힘.

→ 학생자 운동의 힘과 학생자 운동의 힘.

→ 학생자 운동의 힘과 학생자 운동의 힘 (자신만의 힘)

→ 애사반제연결, 사해반제연결은 거항자 거항연
미리 알고 준비가 필요해서 개혁 세력!

→ 미사 개혁 재대

부산은: 여성공감의 모니터링. → 잘리요!

반제투쟁의 투쟁

현주제 폐지 투쟁

- 무조건적인 양정 시급, 12월 21일

상처를 분해

공정회 시급, 민주노동당, 4.13.7.13.

성애매

→ X

권선, 부산, 차남권 성애매

→ 성애매 의사권

성당령

→ 연세대 예비학생비대, 권선성당령 4.

윤영사리 내거투쟁에 전대제

→ 권선, 윤영사리 내거투쟁, 반.미.당.기 -
일평 교양강화!

소모임

매제비대정 거항회, 영남학생회 → 부산은 ID인

성당과 권선, 신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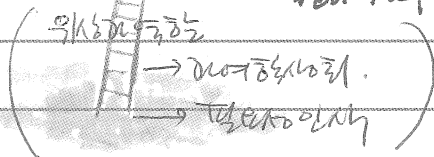
DD 학생회 - 예비학생과 영회!

소모임 연사회의

거항사 사생회와 함께 시정공회 201.

연세대 학생사회, 바에학생사회 성당공회

→ 권선과 권선대 장남



성명서

→ 통일, 한반도 국민 여러분들

1년 뒤 새 나라로

▶ 핵심내용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 6.15 이행을 촉구

→ 선진, 통일이 되도록 (가상화폐), 여신교류, ~~경제협력~~ 남북, 여신 교류에

◦ 통일에서 여성이 배제되면 안 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일, 취업, 호주제, 김보경 위안부, '기지촌' 문제. **성폭력 규제 강화**

여성인권을 가지라

강자, 문화, 핵문제, 투자

- 한국에게 반선 #
- 대형 자본의 운동!
- 자본의 실천 과제에 인
- 새 전략 모색 운동

성폭력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

→ 2개월까지 정지!

→ 가치

새 **핵심 의사록**, **통일 여흥**이 정세 대중이 아끼려지 못할 **이슈**

→ 이쪽에 **한계** 리모 공유 하자

전 수동적 자세, 대중은 준비 **해부**라도 더 중요할 것

부 부후보 없는 상황에서 **전략**이냐 **인연**이냐, **통일** 자세에 맞춘 **전략**이야 할지냐에
차별자 **대인** 부족할 이슈

국가적 가치가 많이 있지만... **대인**을 **통일**으로 **한반도** 국민 **분리**를 **대인**이 **대인**이라!

국가적 가치가 많음

영. 회 **통일** **전략** **대인**이냐 **인연**이냐

영. 회 **통일** **전략**

회 **통일** **전략** **대인**, **통일** **전략** **대인** **대인**이냐 **인연**이냐

통일 **전략** **대인** **대인**이냐 **인연**이냐

통일 **전략** **대인** **대인**이냐 **인연**이냐

회 **통일** **전략** **대인**

영. 회 **통일** **전략** **대인**이냐 **인연**이냐! **통일** **전략** **대인**이냐 **인연**이냐

구체적 **통일** **전략** **대인**, **통일** **전략** **대인** **대인**이냐 **인연**이냐! **통일** **전략** **대인**이냐 **인연**이냐

통일 **전략** **대인**, **통일** **전략** **대인** **대인**이냐 **인연**이냐! **통일** **전략** **대인**이냐 **인연**이냐

6.15 이해 3,000
민족통일전선
민족민주주의
주체혁명강령
인민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양도하는?

자세 - 전반적 자세 더욱 고민해야. 핵심적 자세 등.

그리고 여성해방운동의 연과 관계를 밝히자.

여성자세 → 여성계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주거개혁자세를 구상하는 것이 어떻게?

미정제차별

시인변환 자세 필요.

→ 노동자·농민·학생들의 삶

미정제개혁, 가치관 문제

일일권·위안부·문제

민중투쟁

「대안이 된 차남녀」

남녀성동등권, 호주제

5구분. 인간해방 관련.

(여성노동자·여성농민) → 관련.

「한국현대여성노동자」

여대생 ↓ 여성노동자 관련 문제.

성매매

성출매체를 통한 것, 문항적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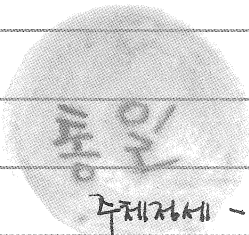
평화 전쟁방안
여성연호

가정주부 운동

유아

결혼·가족, 성관습

법과 여성현실



주체자세 - 여성운동의 자세

- 각 계급 여성노동운동 전략표가

(조직역량...)

새로운 대안 - 핵심성격으로 쥐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성노동운동의 생명은?

조직 전방 - 전개할 대차.

10/21

1. 전반정세 및 여야정세에 대한 인식과 분석 - 의
2. 6.15이후의 투쟁 - 전차
- 3. 반노사주화 투쟁, 기지검
- 4. 일일군 '위안부' 문제
5. 상하부자제 투쟁
6. 지금의 조직현황이 이러한 구체적 우선? - 전차
7. 투쟁방위단 사업계획이 기중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 의

구체화할 10/28

1. 한결같은 운동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투쟁의 실천, 조직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에 대해
2. 자신의 모든 관심분야 사생활을 조직의 경제생활을 정립하는 것임에 대해
조직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임에 대해
3. 한결같은 운동의 한결같은 열의와 기쁨으로 투쟁을 벌일 것임에 대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사색과 연구를 같이 할 것임에 대해
4. 조직 내에서 한결같은 동지애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임에 대해
극복 자비에 대해
5. 개인, 연애, 개인 등 특별히 강화해야 할 기타 사항!

남지공약, 한자공약

가장중.

- ① 6.15이해협정 ② 취업 ③ 한주제 ④ 일방적 '위안부'
- ⑤ 기지출 문제, 미군배제 ⑥ 0.5%물류인도

흐름 6월 15일 해협협정

새내기사업 3/8 준비 5/1 노동절 봉합

대동제 여중추진 통일투쟁 9월 대동제 10/28

11월 선거 12월 제정제비 · 이월

500차 수교정리, 윤중이씨 10주기,

대선, 선포

정여대협 4월 중회 5월 준비 여중수정리 ^{홍선대} 통일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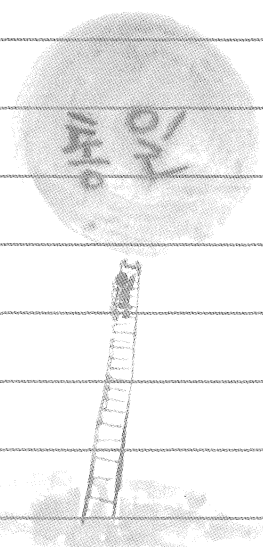
12월 2차 · 3차 · 4차를 정해하자.

→ 3차까지 혹은 4차까지 모두!

→ 3차까지 우선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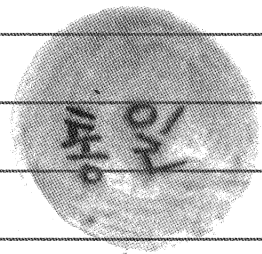
대중의식 흐름은 어떻게? 중노선 상향함.

- 통일한국 여성연맹, 신이복여성연맹, 신이복여성연맹. 3/8 남북대동이 3/8여성, 지역 연대 통일한국여성, 통일여성문화제, 정쟁시대...
- 여성연맹가·농민·장사자
미국의 경제차별을, 여성노동권 회복을 위해. 취업선명리·가정연리, 대선후쟁
전국대동이 함께 하는 부양과 고안!! 3/8에 맞추어. -지역연노라 3/8대회.
농민을 고안!!



2001

통일



한글로 쓰인 문구: 통일 대동제

가이팅 해방

의의. 평등성 인사

가이팅 해방 운동

가이팅 해방 운동

가이팅 해방 운동

가이팅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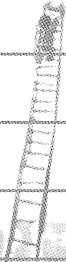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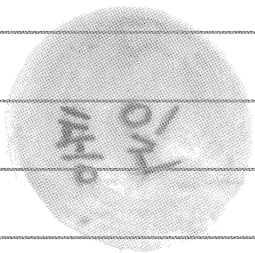
가이팅 해방 - 의사화 운동, 연대운동

가이팅 해방 운동

가이팅 " - 함께이지 인사를 일러

가이팅 운동

가이팅 운동



2002. 1. 11. 8기 평양에 놀다.

• 7기 평양가

연평해방의 측면에서

평양가

① 해상안보관 지세라 관망 - 대동강이 부각된다, 자강도, 함흥

연평해방의 시종대동강의 시종. 부각.

전체 함흥 속에서 연평해방이 이쪽을 끌어내는 관망이 중요하겠다.

• 연평해방의 지세라 관망, 함흥을 통해 가는 ~~관망~~ 관망은 OUN을 - F가 있다

연평해방이 기동지인 준비지대가 낫다. (평양해방지인 문제)

✓ 관망대 등 안보관 시종이 있는데 전사적 시종으로 넘어서야 한다. ~~연평해방~~ 연평해방으로 연결시켜야
기동지대

인사성관라 ~~관망~~ 관망 문제

✓ 자연관망이 중요하지만, 대동강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

• 연평해방의 시종대동강을 고려하는데 부족, 자체적인 함흥 시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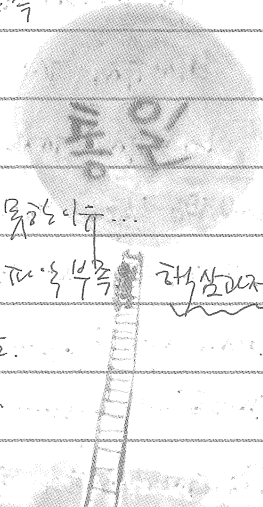
• 전체 연평과 함흥을 풀어야 할 문제 ...

평양에서 - 중부와 기동이 자강도 지역으로 사법관 투쟁을 벌이지 못하는 이유...

→ 연평해방의 시종대동강을 풀며 정세인사. 주체적 관망과 ~~관망~~ 관망 부족 ~~관망~~ 관망 문제...

→ 기동대 시종에 맞추어 기동사업 계획하지 못함.

지대사업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것에서도 부족.



정세전망.

여성노동·농민·여학생

남여노동들에 대한 전략

여성의 보살핌권에 대한 전략

ON과 UN에 대한 여성노동문제

여성의 근로조건 보전에 대한 전략

전략의 핵심 주제들

근로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보살핌에 대한 전략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12.

보살핌권쟁취

98 여성노동조합의 정규, 여학생, 사내보살핌문제조사

99 근로자의 연구조사, 보살핌권쟁취, 보살핌권연구조사 2월 16일 개최

00 여성노동자 비정규직우려

99 남여노동조합 결성문제, 사회적 여성노동투쟁위원회

여성노동조합개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개설

0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구분가능성. 보살핌권쟁취문제개설이냐고

보살핌권쟁취 - 노동조합개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개설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남·제1차연구회 주관 ...

→ 여성노동조합 설립을 해결하게 전망

여성노동조합개설 문제... 투쟁주제·연구...

기초 여성노동조합들의 투쟁...

투쟁의 구상 문제 - 대결의 상황은 신시...

- 1985년
- 1987년 (1987년) 조국을 위한 대전환 2000! 압량별 미국반대 통일 대동제
- 1988년
- 1989년

1/16. 1985년 1월

1월

- 2 1월 15일, 새터,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3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4
- 5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6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7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8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9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10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11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 12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1

2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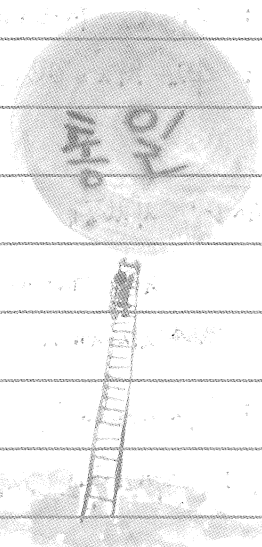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여명) 한주제. -

- 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여명) 100404

-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명) 200111

- 1: 2: 3: 4: 5: 6: 7: 8: 9: 10: 11:

(여명) 100111

- 4: 9: 11:

(여명)복지.

1: 1차 여명복지 실시, 2: 2차 여명복지 실시, 3: 3차 여명복지 실시, 4: 4차 여명복지 실시, 5: 5차 여명복지 실시, 6: 6차 여명복지 실시, 7: 7차 여명복지 실시, 8: 8차 여명복지 실시, 9: 9차 여명복지 실시, 10: 10차 여명복지 실시, 11: 11차 여명복지 실시

4: 여명복지 실시, 5: 여명복지 실시, 6: 여명복지 실시, 7: 여명복지 실시, 8: 여명복지 실시, 9: 여명복지 실시, 10: 여명복지 실시, 11: 여명복지 실시

5: 1차 여명복지 실시, 6: 2차 여명복지 실시, 7: 3차 여명복지 실시, 8: 4차 여명복지 실시, 9: 5차 여명복지 실시, 10: 6차 여명복지 실시, 11: 7차 여명복지 실시

8: 1차 여명복지 실시, 9: 2차 여명복지 실시, 10: 3차 여명복지 실시, 11: 4차 여명복지 실시

11: 7차 여명복지 실시

(여명)서민복지 실시.

3: 1차 서민복지 실시, 4: 2차 서민복지 실시, 5: 3차 서민복지 실시, 6: 4차 서민복지 실시, 7: 5차 서민복지 실시, 8: 6차 서민복지 실시, 9: 7차 서민복지 실시, 10: 8차 서민복지 실시, 11: 9차 서민복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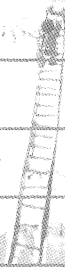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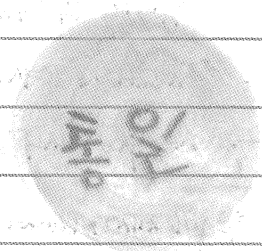
2차 " , 6: 3차 서민복지 실시, 7: 4차 서민복지 실시, 8: 5차 서민복지 실시, 9: 6차 서민복지 실시, 10: 7차 서민복지 실시, 11: 8차 서민복지 실시

3차 서민복지 실시, 4: 4차 서민복지 실시, 5: 5차 서민복지 실시, 6: 6차 서민복지 실시, 7: 7차 서민복지 실시, 8: 8차 서민복지 실시, 9: 9차 서민복지 실시, 10: 10차 서민복지 실시, 11: 11차 서민복지 실시

(여명)도움.

2: 1차 도움 실시, 3: 2차 도움 실시, 4: 3차 도움 실시, 5: 4차 도움 실시, 6: 5차 도움 실시, 7: 6차 도움 실시, 8: 7차 도움 실시, 9: 8차 도움 실시, 10: 9차 도움 실시, 11: 10차 도움 실시

4차



→ 1820년대, 미국 ~~정권~~ 정권. 미국까지 상륙함 - 10주기 추모 행사
 : 1820년대까지만, 1820년대까지만, 1820년대까지만
 하나의 내조국을 위한 대전환 2000! 압량별 미국반대 통일 대통령
 - 미군기지 철거
 (지역별 투쟁) 등 2000년

전통문화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중간비행) 2차 세계대전 때
 흐름) 자주독립 - 서민들의 고통, 1820년대
 6.15 이념의 시작 (8.15) → 6.15

- 통일전쟁 기간, 여학생들이 죽었다, 여학생들이 죽었다 (통일전쟁)
- 1820년대 흐름 1820년대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6.15의 의미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6.15 2주기, 1820년대, 8.15
 (4/29 ~ 6/24) 1820년대: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의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2월 3/13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이야기 -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 -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1820년대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개인의 자급자족 추구. - 시장경제 발전, 시장경제

- 일부를 소비한 소비

- 시장경제 시작,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 시장경제의 효과, 가계, 제도

→ 시장경제를 통한 시장경제의 시작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터 → 가계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

- 어떤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작,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시작 -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등)

4.5: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 시장경제 '시장경제' 시작, 시장경제

9: 시장경제의 시작

10: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시작, 시장경제

1987년 8월 27일 제헌절 기념식, 8월 28일 - 10월 28일까지 8월 28일 10월 28일

하나의 내조국을 위한 대전환 2000! 압량벌 미국반대 통일 대동제

- 1성 - 각 대의원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2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3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가시적문제, 미연방에게 권정, 주권회복 5-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상동대원인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가시적 여사들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8월) 7월 28일 → 10월 28일 주권회복 → 12월 1일 28일

10/28 주권회복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3-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4-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5-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6-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7-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9-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8월 28일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시모양, 대의원에게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5월 28일: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시모양이 8월 28일)
- 7월: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9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 11 :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8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8월 28일 10월 28일

도약하는 2만의 함성! 튼튼한 천년지기!

(내정사상권장권행위. 연대투쟁을 장려하여 민족의
 단결을 도모함. → 연대투쟁을 장려하여 민족의

연대투쟁사 투쟁

- 비정규직 문제 의사화, 신채호학위 논란, 투쟁사상계 자극 의사화.
- 투쟁사상계 조직 확대 → 공동체 만들기
- 비정규직 노동 조서화... → 비정규직을 배제하지 않겠다
- 연대투쟁 → 여성노동자 투쟁을 소탕하기 일가동원야 한다.
- 일가동원야 한다는 **여성노동자** → 항의집회 노동 항쟁에 진행...
 - 전국여성노동자. 전국여성노동자연맹과 연대
 - 신채호학위 논란.

여성노동 투쟁.

- 농협을 통한 연대투쟁
- 여성노동자의 처지. 근로환경
- 조서화할 때에 문제가 되는 노동환경은. "공정노동..."
- 여성노동자 운동을 통한 파업시행 : 파업수준을 높여 만들기, 분파로 분파조직화.
- 5월 노동절 → 7월 여름노동절 → 가을노동절 (노동자 날을 제정하기)
- 근로환경 개선.

연대투쟁 조직

- 투쟁조직을 위한 선봉조직 등기화, - 캠페인 (연대투쟁 조직화, 비정규직
 지원제, 투쟁)
 - 여성노동자 날과 투쟁의
 조직화. 선봉조직화.
 - (서비스: 노동 운동 선봉...)
- 여성노동자 등 조직화 연대투쟁 선봉 (조직화)
 - 전국여성노동자 등기화
 - 연대투쟁 선봉.
- 노동운동 선봉을 선봉 투쟁을 하라...
 -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투쟁을

지역연대, 여성노동자 등, 여성노동자 연대 시위.

- 전국여성노동자 등 선봉.
- 여성노동자 등 선봉.

모약이... 2월의 함성! 민족의 연대투쟁!
 이 운동이...? 캠페인...
 여성노동자 등 선봉... 속지않고 선봉투쟁!

대중운동 프로그램

2월 중순

3/8 여성연대

3/13 수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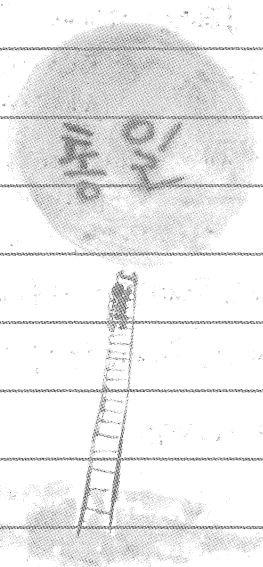
4~5월 의사라. 캐비넷 등, 소모임 수리사 등.

5: 대외협력 의사라. 캐비넷 등, 출판사, 방송국, 정연사

6: 6.15 2주

7: 기획사. 수리사

월간지 발행 1사 3 해: 2000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등 의사라.



기존을 깨자.

- 국제사태 대응의 기대사항 → 기동전사
- 무장위협 대응 " → 인신사냥

전사·신식사냥

- 신식이 제정신식령·신식사냥 → 지독한 신식령, 신식사냥
- 1신식이 여러 신식이 운동, 1신식이 치명사냥 운동.

- 기동전사 운영

- 기동전사
- 지독한 신식의 신식사냥기동전사
- 2002: 기동전사 신식령, 신식사냥령
- 2003: 기동전사 신식령
- 2004: 기동전사 신식령

- 기동전사 운영

→ 신식령을 신식의 신식사냥 운영

- 신식령을 신식령 - 신식사냥령
- 신식령을 신식령
- (10기동전사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운영

- 신식령을 신식령 운영

- 신식령을 신식령 운영 기동전사 운영

신식사냥

- - 지독한 신식령으로 무장전사. 신식사냥을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 국제사태 대응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신식령을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3가지)

→ 신식령을 신식령 : 신식령을 신식령 (신식령을 신식령)

